



스님들의 권위의식

수행자는 오만하면 안 된다. 오만하게 되면 그 순간 죽음의 무덤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스님이라고 하여 신도를 위에 있다는 생각을 하는 그 순간 바로 수행자의 생명은 죽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못난 스님은 신도들에게 자신을 존경해 주지 않는다고 시비를 거는 것이다. 행자 때는 하심도 잘하던 사람이 계를 받고 스님이 되면 그날부터 태도가 달라진다. 거만하고 오만해 진다. 그리고 어디를 가든지 또 누구를 만나든지 대접을 받으려고 한다. 조금만 대접을 소홀히 하면 불만을 가지고 시비를 한다. 어찌 스님을 이렇게 대접하느냐고.

참으로 공부가 잘된 스님은 공부가 높아지고 악어갈수록 겸손해 진다. 누가 대접을 잘해 줄수록 몸을 더욱 낮추고 겸손하게 행동한다. 결코 누구에게도 대접해 달라고 하지 않는다. 설사 누가 무시하고 팔

중생 잘 섬기는게 수행의 기본

권위 보다는 인격으로 감화시켜야

시해도 화를 낸다든지 하지 않는다. 신도들에게 대접을 잘 받고 존경을 받는 것은 강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의무적인 것도 아니다. 여러 석은 사람들은 자꾸 신도들에게 '왜? 스님을 존경하지 않느냐'고 강요하고, 마치 신도들은 스님들을 존경해야 하는 것이 의무적인 것 같이 말한다. 하지만 존경하는 것은 강요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인격이 훌륭한 스님들을 만나면 그 인격에 감동을 받고서 마음속에서 우리나라 하는 것이다. 적어도 스님으로서 수복을 입고 가사 장삼을 입은 바에는 신

도들에게 감화를 줄 인격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것이 승려의 기본이다. 불자들이 한 가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부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은 중생을 잘 섬기는 것이다. 왜냐하면 중생이 바로 부처님이기 때문이다. 그것을 수순중생(隨順衆生)이라고 한다. 따라서 스님들도 중생을 섬겨야 한다. 오히려 중생을 부처님 같이 섬겨야 하는 것이다. <법화경>에 나오는 상불경 보살은 중생을 섬기는 수행만으로 부처님이 됐다. 동학이 구한말에 들불처럼 일어나게 된 것도 사인연(事人如天)이라 하여 사람이 하나님임을 깨달고 사람을 하나님으로 섬겼기 때문이다.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상은 바로 불교의 사람이 부처님(人即佛)이라고 하는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끝으로 스님들은 신도님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데 이것도 매우 세속적인 생각이다. 물론 신도들은 존경하는 스님들의 언행에서 절대적인 영향을 받는다고 하는 차원에서는 권위가 있게 된다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을 스님이 추구해서 생긴 것이 아니다. 그냥 인격적인 감화를 주었기 때문에 저절로 생긴 것일 뿐이다. 그래서 스님들이 신도들에게 권위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세속인 생각이 아닐까. 적어도 스님으로서 수복을 입고 가사 장삼을 입은 바에는 신



● 효림(실천불교전국승가회 의장)

많이 잃고 조금 찾았다

문화재단난 비해 회수·검거율 저조...노동래의원 지적

8.7% 되찾아 "종합대책절실"

도난당한 문화재의 회수율과 도굴범 검거율이 부진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재단이 국회 문광위 소속 열린우리당 노동래(서울 마포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자료에 따르면 1996년 이후 지난 8월말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문화재 도난은 198건에 7,548점이었던 반면, 문화재 회수는 42건에 662점에 불과해 회수율이 고작 8.7%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문화재 도굴(미수 포함)은 36건이었으나 검거건수는 20건으로, 검거율이 55.5%에 머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5대 범죄 검거율이 84.2%인 것에 비하면 턱없이 낮은 검거율이라 할 수 있다.

특히 보물·국보급 문화재 도난 사건이 심각하다. 1999년과 2001년에 도난당한 보물 제566호

'유근영정'과 국보 제238호 '소원화개첩' 등이 아직 회수되지 못하고 있다.

문화재 도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2001년에 사적 제191호 고려 공양왕릉(경기도 고양시 원당동)이 도굴됐고, 2002년에는 국보 제4호 고달사지부도(경기도 여주군, 2003년 국보 제57호 쌍봉사 철갑선사탑(전남 화순군) 등이 도굴 미수에 그쳤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문화재 도난·도굴 사건이 활개치는 이유로 한 문화재청 관계자는 "문화재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국내의 암시장에 점조직으로 구성 돼있기 때문에 한번 해외로 반출된 문화재는 회수가 거의 불가능하다"며 당국의 정확한 문화재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법제상의 허점도 회수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지적되

고 있다. 실제로 서울 서초경찰서는 2001년 충남 부여군 무량사 주지실에서 훔친 지방유형문화재(충남도 100호)인 관음보살좌상 등 불상 3점을 공소시효가 지난 뒤 팔려간 김모 씨에 대해 문화재보호법 위반(은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김 씨가 "12년 전 장물인 줄 모르고 구입했다"는 주장을 펴 처벌에 어려움을 겪자 '은닉' 혐의를 적용했던 것. 그러나 재판과정에서 김씨가 계속 '선의취득'을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할 경우 도난당한 불상은 되찾을 수 없게 된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문화재는 국민의 자산인 만큼 도난과 도굴에 의해 외국으로 팔려나가거나 사자(私藏)되어 사라지는 것은 국가적 손해인 만큼 정부는 문화재 관리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며 사법당국의 노력을 촉구했다.

전문가들은 문화재 도난·도굴 예방법으로 ▲정부의 문화재관리

법 재정비 ▲도난 문화재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도난 사실에 대한 신속한 신고와 제보 ▲문화재사법단속반 강화와 검·경찰에 문화재전담반 설치 ▲문화재 청원경찰 확충 ▲교구본사의 관리감독 기능강화와 자동 경보시설 설치 등을 꼽았다.

노병철 기자 sasamin@buddhapia.com

불교환경위크숍 개최

조계종 10월27~28일

불교 환경운동의 방향타 구실을 할 '불교환경의제21'을 확정하게 될 '불교환경위크숍'이 10월 27~28일 천안 한국증권연수원에서 개최된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해인사 정원, 월정사 현각 스님 등 교구환경위원회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9월 22일 한국불교역사기념관에서 제1회 교구환경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최하고 ▲불교환경위크숍 ▲연2회 교구환경위원회 연석회의 개최 등 주요 현안들을 확정했다.

조계종 환경위원장 지원 스님(총무원 사회부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불교계가 천신상, 북한산 등 환경문제 때문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교구 본사들이 서둘러 환경위원회를 구성해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조계종 환경위원회는 앞으로 교구환경위원회가 없는 사람에 대해 이 기구의 구성을 지원하는 사업 등을 펼칠 계획이다.

경유신 기자

우리나라 7대 종교 중 여성 성직자 비율이 가장 높은 종교는 천주교인 것으로 나타났다. 불교는 천도교에 이어 5번째로 조사됐다. 이는 문화관광부가 9월 25일 국회 여성위원회 소속 유승희(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의해 밝혀졌다.

이 자료에 따르면 천주교 여성 성직자는 8455명으로 전체 성직자(1만2366명)의 68.3%를 차지해 7대 종교 중

여성성직자 비율 불교는 5번째

문광부 국정자료서 드러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두 번째는 원불교로 전체 성직자 2455명 중 58.5%인 1429명이 여성 성직자며, 대종교(48.9%), 천도교(43.5%)가 그 뒤를 이었다.

불교는 36.9%로 5번째(4만1232명 중 1만5224명)로 조사됐으며, 6번째인 기독교는 전체 성직자 7만9023명 중 26%인 2만564명의 여성 성직자가 활동중이다.

한편 여성 성직자 비율이 8.2%(3만1833명 중 2623명)인 유교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다. 남동우 기자

총장 추천위원회 구성

중앙승가대 운영위 "학내의사 반영돼야"

중앙승가대(총장 종범)는 제50차 운영위원회를 열고 오는 11월 15일 임기가 끝나는 종범 스님의 후임 총장을 선출하기 위한 '총장 추천위원회'를 결성하고 10월 6일 개운사에서 첫회의를 갖는다. 제4대 총장 추천위원회는 교수, 직원, 동문회, 학생회를 대표하는 10인으로 구성된다.

지난 9월 13일 열린 운영위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총장의 임명이 기본적으로 중앙승가대 이사회(이사장 법장)의 고유 권한이지만 일차적으로 대학 구성원들 내부의 의사를 한 것으로 모으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을 같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중앙승가대 관계

자는 "현 총장의 임기가 2개월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후임 총장을 선출하는데 학교 내부의 의사가 반영되어야 한다는 원칙적 수준의 결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운영위에서 일부 참석자들이 종범 스님의 연임을 권유했지만 스님은 이에 대해 거부의를 명확히 한 것으로 알려졌다.

종범 스님은 지난 2000년 중앙승가대가 안암동 개운사에서 김포 학사로 이전하면서 제3대 총장에 취임했으며, 4년 동안 학인들의 수행증식 면학분위기 조성과 대학의 안정화를 이루는데 주력해 왔다.

조용수 기자

조계종 사미(니) 158명 배출 제 27기 행사교육원 회합

조계종의 새 사미·사미니 158명이 배출됐다. 9월 2일 송광사에서 시작된 제27기 행사교육원이 23일 회합했다. 이에 앞서 22일 실시된 5급 승가고시에 총 163명이 응시해 남행자 77명, 여행자 81명이 예비승려 자격을 얻었다.

조용수 기자

社 告

제10회 신행수기 공모에 동참하세요

원고지 30매...마감 12월 15일

- 주제: 일상속의 신행 및 수행 체험, 불심으로 고난과 역경을 이겨낸 이야기
- 분량: 200자 원고지 30매 안팎(4지 4행)
- 당선작 발표: 2005년 1월 1일자 현대불교신문 및 불다뉴스(www.buddhanews.com)
- 접수처: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신행수기 담당자
- 문의 전화: (02)722-4162
- 인터넷 접수: thatiswhy@buddhapia.com (성명과 연락처를 필히 기재해 주십시오)

- 시상내역
 - ▷대상(유마상) ▷우수상(본사 사장상)
 - ▷특별상
 - 종단협의회장 - 태고종 총무원장
 - 현대종 총무원장 - 관음종 총무원장
 - 총화종 총무원장 - 대한불교 진흥회 이사장 - 신수회장
- * 각 부문 당선작에는 상장과 부상-행운의 금(최고 10만) 액을 소액씩 수여합니다.
- * 10~11월 두 달간 현대불교신문과 불다뉴스를 통해 수필가 명랑자 선생(예세이문학 발행인)의 수기 쓰기이해를 연재하고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노대행

발행·편집인: 김광삼

인쇄인: 채수삼

1994년 10월 15일 창간
등록번호: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료: 1개월 5천원 영구 62만5천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정보센터: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불교쇼핑: '마하몰' www.mahamall.co.kr
온라인서점: '여시아문'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알 '유물로 보는 오대산 문수신앙' 특별전

림 '대륙의 문수성지, 반도로 오다' 사진전

평창 월정사 성보박물관(관장 정범)은 현대불교신문사 후원으로 개관 5주년 기념행사 '유물로 보는 오대산 문수신앙' 특별전과 '대륙의 문수성지, 반도로 오다' 사진전을 개최합니다. (033)334-1817

- 일시: 10월 8일~12월 5일
- 장소: 특별전(월정사 성보박물관 전시실) 사진전(월정사 응급루 상설전시장)

INVITATION

제2회 사회복지학술세미나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초대의 말씀

귀의 삼보하옵고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에서는 "노인복지 증진을 위한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아래와 같이 학술 세미나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부디 참석하시어 자리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04년 10월 15일(금) PM 2:00 ~ 6:00

♣ 장소: 세종문화회관 4층 Conference Hall

지하철: 1, 2호선 시청역 3번 출구, 3호선 경복궁역 6번, 7번 출구, 5호선 광화문역 1번, 8번 출구

교통편: 버 스: 세종문화회관 앞

행사프로그램

| | | |
|---|-------------------------------------|-------------|
| 제1부 | 토론 | 15:50~16:20 |
| 등록: 13:00~14:00 | 함철호 /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개회식 | 김승룡 / 천안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개회사: 이종욱 /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이사장, 법무법인 태평양 대표변호사 | | |
| 축사: 안필준 / 전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노인회 회장 | | |
| 인사말: 김용택 / 청호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 휴식: 16:20~16:30 | | |
| 기조강연 | 발표 3: 호스피스활동과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 16:30~16:50 |
| 주제: 한국고령자복지정책과 종교사회복지의 역할 및 과제 | 조성희 / 순천향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차용홍 /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노년학회 회장, 사회복지학회 회장, 한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 발표 1: 노인요양정책과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 발표 4: 케어메니지먼트와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 16:50~17:10 |
| 15:10~15:30 | 장정호 / 일본 시즈오카복지대학 교수 | |
| 발표 2: 재가노인복지서비스와 종교사회복지의 역할과 과제 | 토론 | 17:10~17:40 |
| 15:30~15:50 | 이은희 /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이재모 / 대구가톨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이병현 / 상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 | 종합토론 | 17:40~18:00 |
| | 김용택 /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장, 동국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 |

주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98-12
재단: Tel. 02)517-3052 / FAX. 02)542-0519
연구소: Tel. 02)517-3045 / FAX. 02)515-3021
홈페이지: http://www.chbuddha.com

재단법인 청호불교문화원 부설 불교복지문화연구소 소장 김용택 합장